



둘 중 하나만!

술과 운전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기술지원, 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교육·홍보, tbn교통방송, 운전면허 관리,
교통과학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KOROAD BIMONTHLY MAGAZINE

겨울 매

2025 11+12월호 VOL.490

2025 11+12월호
VOL.490

KOROAD



신호등
KOROAD BIMONTHLY MAGAZINE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참여하는 마음으로

도로 다시 보기



바람이 차가워지면 도로 위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도로 위에 비나 눈이 얼어붙어
작은 부주의조차 큰 사고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연말을 앞둔 지금, 안전한 도로를 위해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의 참여가 도로 위 생명을 지키는
커다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약속도 많아지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작은 행동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모임에서 술을 자제하고,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결심,
대리운전을 부르는 선택이 바로
도로 위 생명을 살리는 실천입니다.

교통안전,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참여입니다.

신호등

포켓뉴스 안내

자주 헛갈리는 교통법규나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교통안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 오디오 E-BOOK

QR코드를 촬영하면 오디오북으로 신호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통권 제490호

발행일 2025년 11월 7일

등록일 1980년 8월 22일

창간일 1980년 9월 30일

발행처 한국도로교통공단

발행인 김희중

편집인 엄관식

주소 264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전화 033-749-5085

제작·디자인 경성문화사

외부 감수 황준승



[특집] 도로 다시 보기: 참여하는 마음으로

- 06

약속해요 안전운전
당신의 선택이 안전한 도로를 완성합니다
지금 안전운전으로 가는 여정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10

사고 보고서
한 잔으로 남은 인생이 달라진다
- 12

신호등 인사이트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16

교통안전 퀴즈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배 - 움 - 길

- 18

슬기로운 운전 생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대로 알기
- 20

죄와 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
- 24

내 차 사용법
겨울철 올바른 히터 사용법
- 26

미래 도로 설명서
교통 혼잡의 해법
스마트 주차, 도심을 바꾸다
- 30

호동이 안전톤
6화 도로 위 암살자,
도로 살얼음 주의!
- 48

안전 수칙 365
약물 운전 예방 수칙



실 - 천 - 길

- 32

팔도강산 한 바퀴
산과 강, 전통이 만나는 도시 경기 양평
- 38

지금, 여기
자작나무숲
- 40

세계 돌보기
세계가 주목한 독특한 횡단보도 디자인
- 42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약속
- 46

시선 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시선차이



나 - 눕 - 길

- 50

KOROAD, CO-ROAD
세계의 무장에 도시 디자인
- 52

독자 설문조사 결과
- 54

우리집 필라테스
골반과 다리를 교정하는 필라테스 동작
- 56

KOROAD 게시판
- 58

KOROAD 소식
- 62

교통안전 소식
- 63

호동이 색칠공부
- 64

독자마당
- 66

구독 안내

9 172508 754006

ISSN 2508-7541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신호등」에 실린 자료는 사전 동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호등」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환경부와 국제산림관리협의회에서 ‘환경인증’을 받은 재생 용지를 사용합니다. 내지는 친환경 재생 펄프(DIP) 함유율이 20% 이상인 제지를 사용해 환경친화적으로 제작합니다. 또한,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잉크를 잉크로 인쇄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안전한 도로를 완성합니다 지금 안전운전으로 가는 여정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이 다가옵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음주운전 대신 안전한 귀갓길을 선택해 주세요.



2025 약속해요 안전운전 캠페인

2025년 「신호등」은 교통사고 원인 1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펼칩니다.

1+2월호

배려로 성장하는 초보운전,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3+4월호

교통약자와의 동행,
성숙해지는 교통문화

5+6월호

도로 위 양보,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

7+8월호

운전 중 전방 주시,
모두를 위한 약속

9+10월호

헛갈리는 교통신호?
아는 것이 힘!

11+12월호

**음주운전은 금지,
졸음운전은 휴식**

음주운전 자가진단

출발

오늘 하루,
안전운전을 약속하며
출발합니다!



규칙

각 칸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세요. 대답에 따라 앞으로 가거나, 제자리에 머물거나, 뒤로 가게 됩니다. 안전한 귀갓길에 도전해 보세요!

술자리가 있다면, 미리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 귀가 수단을 준비했나요?

예 앞으로 1칸 **아니오** 제자리



“맥주 한 잔쯤은
괜찮다”는 생각을 한
적 있나요?

예 잘못된 생각! 뒤로 1칸
아니오 올바른 선택!
앞으로 1칸

술을 마신 친구가
운전하려 한다면,
“운전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 용기 있는 행동!
앞으로 1칸
아니오 침묵은 위험을
키웁니다. 제자리

술을 마신 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걸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다니
안전합니다!
앞으로 1칸
아니오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뒤로 1칸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운전
과 별도로 처벌 대상이라
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 앞으로 1칸
아니오 제자리

게임으로 보는 음주운전 예방



축하합니다!
오늘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착

오늘 술을 마셨다면,
“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다짐했나요?

예 멋진 약속! 앞으로 1칸
아니오 다짐이 필요합니다.
제자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또한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나요?

예 앞으로 1칸
아니오 제자리

과음한 다음날 아침에
운전해 본 적 있나요?

예 숙취 운전은 음주운전!
뒤로 1칸
아니오 좋은 습관! 앞으로 1칸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예 정답! 앞으로 1칸
아니오 뒤로 2칸

음주운전 예방법

출처: 교통안전수칙(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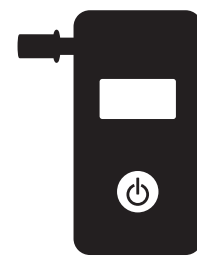
‘술+운전 = 교통사고’ 인식 정립

- 음주운전은 이성적 판단력과 공간감각 저하, 시각기능과 균형감각의 둔화, 인지 반응시간 지연으로 다양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다.
-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음주운전이 단속 또는 사고 경험 없이 진행될 때 습관으로 형성된다.
-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자, 예비 살인 행위이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음주운전은 결국 본인 또는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게 되는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상황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법

- 술자리 전**
 - 술 약속이 있을 때는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습관을 정착시킨다.
 - 약속장소가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장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한다.
- 술자리에서**
 - 꼭 운전해서 가야할 때는 단호하게 술을 거절한다.
 -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과감히 포기한다.
 - 술을 마셨다면 가까운 거리도 무조건 대리운전을 부른다.
- 술자리 후**
 -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음주운전 처벌규정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	
0.20%~	징역 2년~5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0.08%~0.20% 미만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0.03%~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측정불응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측정불응	징역 1년~6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회 이상 0.20%~	징역 2년~6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0.03%~0.20% 미만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한 잔으로 남은 인생이 달라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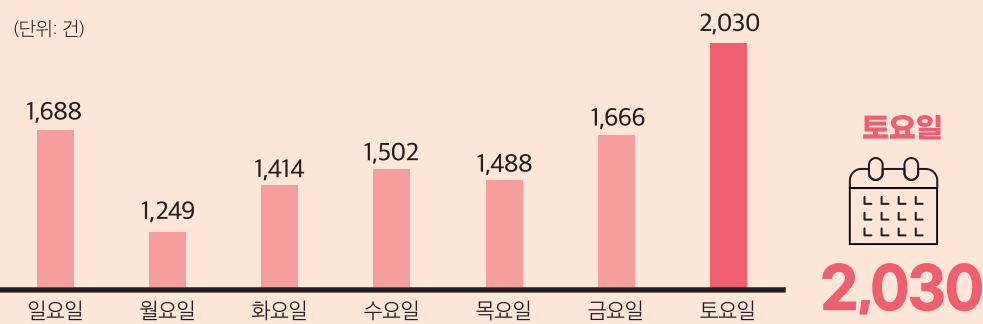
모두가 공감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단속 및 처벌 규정도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사고 현황을 살펴본다.

글: 편집실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술자리 잦은 주말, 야간 음주운전 경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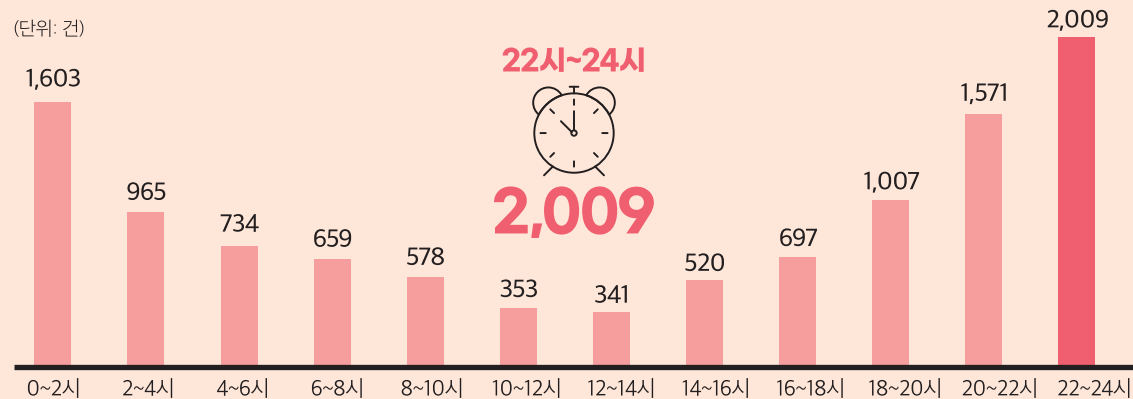
2024년 요일별 음주운전 사고

(단위: 건)



2024년 시간대별 음주운전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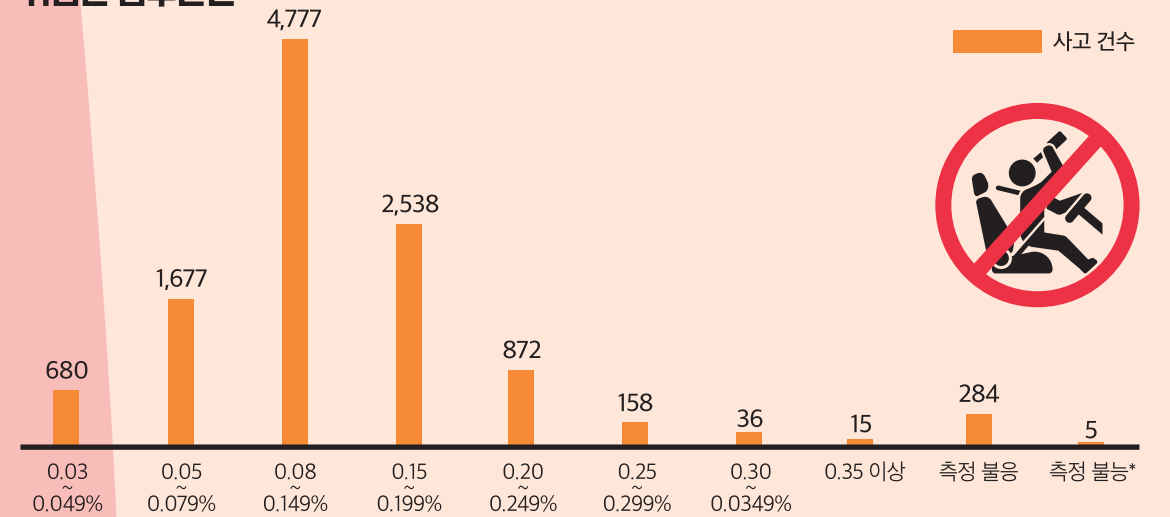
(단위: 건)



2024년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토요일이 2,030건으로 일주일 중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았고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2,009건이 발생해 하루 중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한 잔만 마셔도 위험한 음주운전

2024년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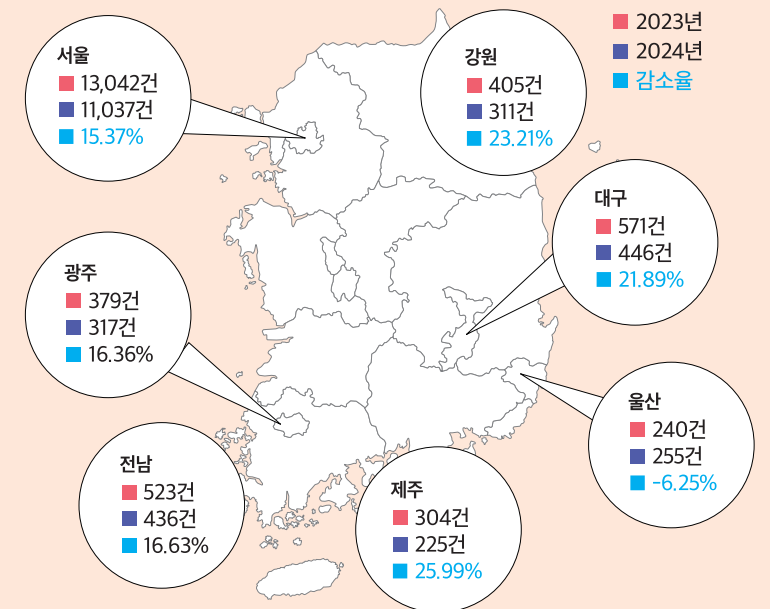
2024년 음주정도별 사고 통계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49% 구간에서만 68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두 잔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사고로 인해 큰 후회와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 측정불능: 관계자의 증언 등에서 음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시간경과 등 상황의 변화로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

지역별 음주운전 사고 감소율 비교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전국 음주운전 사고는 15.37% 줄어들었다. 특히 제주가 25.99%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강원(23.2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6.25%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3~2024년 시도별 음주운전 사고



배려하는 교통안전문화 확산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교통사고 분석과 안전문화 연구를 통한 캠페인과 실질적인 개선 제안으로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문화 현안과 개선 노력에 대해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에 들어본다.

글 송지유 사진 이서연

교통사고 ‘Zero’,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앞장서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교통안전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기여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안전 전문 민간 연구기관이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Zero(제로)’ 사회 실현을 목표로 2001년 7월 출범했다. 이후 운전자, 자동차, 도로환경이라는 3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자체 R&D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교통안전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적극 기여해 왔다. 이는 곧 정책 실행력 강화로 이어졌으며, 교통약자 및 사고 취약계층 안전교육, 언론 홍보를 통한 대국민 계도·계몽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차량 속도관리, 어린이 안전, 고령 운전자 사고, 음주·약물 운전 등 사회적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단속 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3%으로 하향), 도시부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 고위험군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의해 우리 사회 교통안전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최근 연구소는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약물운전 및 고령 보행자의 교통안전 연구

교통사고 Zero를 목표로 하는 연구소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교통 관련 사안을 놓치지 않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이슈로 떠오른 약물운전에 대해 유상용 책임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했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더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청과 협력하여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단속 방법을 보다 체계화하고 있는데, 올해 개정된 관련 법

규 등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약물운전 대책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불법 마약 사용 운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한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이러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계몽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사협회와 협의하여 약물 복용 시 운전제에 대한 명확한 알림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병행 중이다. 또한 마약 관련 기관, 약물 단속 전문가, 약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실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한편,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지난 2019년부터 고령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도 해오고 있다. 특



히 지난 6월부터 운전자의 시인성을 극대화한 형광 연두색 반사띠 부착 쇼핑 카트를 제작하여 교통안전 교육 참여 어르신들에게 무상 제공하며 ‘보이는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저는 이 카트를 ‘걸어 다닐 때 이용하는 안전띠’라고 하며, 어르신들께 평소 시 꼭 이용하시라고 강조합니다. 노란색이 어린이 보호를 상징하듯, 연두색은 고령자를 떠올릴 수 있는 대표색으로 인식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노인 보호구역 확대도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교통사고 Zero를 위한 다각적 연구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유상용 연구원은 2022년 경 배달 이륜차 사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 운전면허 및 보험 가입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도입 등 이륜차 단속 강화 및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자체적인 안전 관리 노력이 강화되어 신호 위반 감소와 안전모 착용 보편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소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폐달 오조작’ 관련 연구를 통해 위험 방지 차량 보완 장치의 의무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분석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연구소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 변화에 연구 기반을 제공하여 정부 기관의 실행을 지원하고,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교통안전문화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인식의 확산’이자 ‘트렌드’이며,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소는 ‘교통안전 교육’과 ‘실전에 접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교통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캠페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 연구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는 ‘인식과 문화’의 변화에 있음을 역설한다.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앞으로도 R&D 기반으로 실용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교통사고 Zero 사회’라는 비전을 향해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얼마나 알고 있을까?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출처: 1·2종보통, 대형·특수 학과시험 문제은행

Q1. 겨울철 도로 결빙 시 안전한 차량운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겨울철 도로 주행 시 사전에 기상정보,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 ② 결빙에 취약한 터널, 교량 구간은 더욱 주의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 ③ 터널, 교량 부근의 강설 전·후로 제설제가 살포되었다면 평상시 제한속도로 정상운행이 가능하다.
- ④ 일부 시·도경찰청은 고시에 의해 눈길, 빙판길 운행 시 월동장구를 사용 운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도움말

제설제 살포 후 녹은 눈이 강설, 염수 등과 함께 재결빙될 우려가 있어 감속운행을 하여야 한다.



신호등과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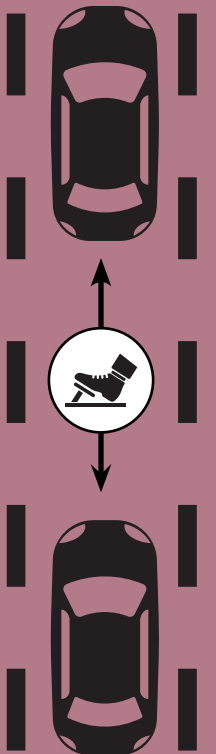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독자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Q2. 다음 중 자동차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의 ‘정지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 ① 차량의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때
- ② 차량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때
- ③ 타이어를 새로 구입하여 장착한 직후
- ④ 과로 및 음주운전 시

도움말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실제로 자동차가 멈추게 되는 자동차의 정지거리는 과로 및 음주운전 시, 차량의 중량이 무겁거나 속도가 빠를수록, 타이어의 마모상태가 심할수록 길어진다.



Q3. 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은?

- ① 처벌하지 않는다.
- ②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
- ③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 ④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도움말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다.



시동 전에 칼차단!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대로 알기

이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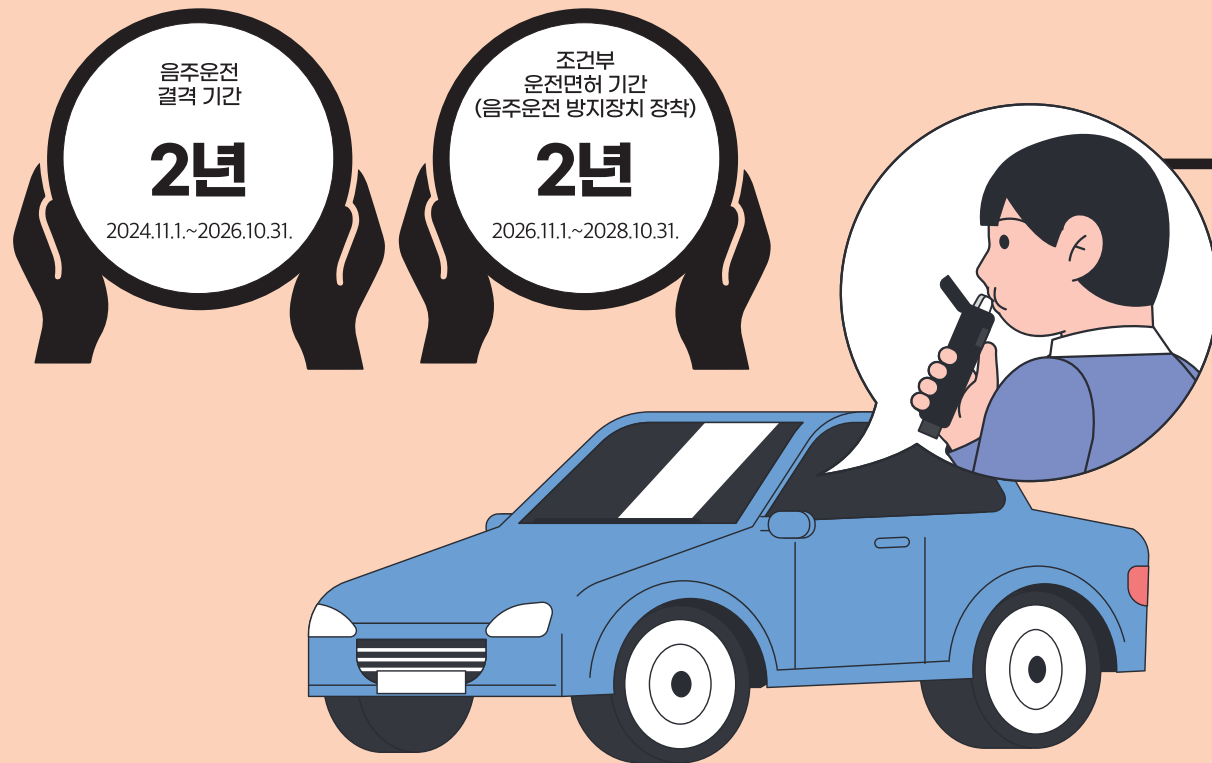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호흡측정 장치를 시동시스템과 연결하여 측정치가 기준 초과 시 시동 제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대상자

2024년 10월 25일부터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 음주측정 방해행위¹⁾ 포함)을 한 사람은 결격 기간 종료 후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기간 예시



1) 음주측정 방해행위(2025. 6. 4. 시행):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대상자 준수사항

-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운전 금지
 -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 ③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 제출 및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검사 미 이행 시
 -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해도 처벌됩니다!

- ① 대상자를 대신하여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 금지
 -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 해체, 효용을 해치는 행위 금지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Q. 장착은 언제부터인가요?

A. 면허 결격기간 이후 방지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입니다.

Q. 방지장치 장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2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3년,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5년

Q. 방지장치가 없는 다른 일반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A. 일반 자동차 운전 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Q.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해도 되나요?

A. 타인의 호흡 측정, 무단 장치 해체 및 조작도 처벌 대상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한순간 감정으로 우린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그 공간이 도로라면 어떨까. 실수는 사고로 이어져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운전 중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며 운전자 폭행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글·그림 차은서 김수 천주현(형사 전문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형사법 박사, 대구고등검찰청·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제1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제61회 법의 날 표창 수상)

우울한 어느 날의 비극

어느덧 시간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정국(가명)은 종일 쌓인 일로 속이 뒤뜰린 채, 친구와 술을 진탕 마신 뒤였다.

“잊어버려!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는 거지.”라는 친구의

위로도 정국의 마음을 잡아주진 못했다.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업무로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정국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놈의 회사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분노로 일렁이는 정국의 마음은 사그라들 줄 몰랐다.

정국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택시를 잡아탔다.

준호(가명)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정국은 집으로 가는 동안 오늘 있었던 일을

되뇌었다.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다시 생각해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 탓에, 조용히 정국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는데, 유독 택시가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이 사람, 괜히 시간끌면서 요금 더 받으려는 거 아냐?’

이젠 택시까지 날 무시하냐?’

순간 정국의 분노는 택시 기사 준호에게 향했다.

“아저씨, 차가 왜 이렇게 안 가요?”

“손님, 지금 신호 대기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출발할 거예요.”

그 말이 불씨가 되어 정국의 마음에 닿았다.

‘기다리라고? 오늘도, 아니, 매번 나는 기다리는 사람인가?’

하루의 피로가, 머릿속을 맴도는 상사의 폭언이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뒤섞여 메아리쳤다.

순간 정국의 시야가 좁아졌다.

그는 갑자기 상체를 앞으로 숙여 운전석 머리받침에 팔을 걸쳤다.

그리고는 준호의 얼굴을 두 차례 밀치듯 내리쳤다.

손이 목덜미 쪽으로 향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

운전대가 흔들리면서 차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옆 차도에 있던 운전자는 놀라 경적을 울렸다.

정국은 그제야 스스로 만든 위험을 인식했다.

숨이 가뻔했다. 그러나 분노의 잔열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주변에서 전해지는 시선과 긴장감이 택시 안을 가득 메웠다.
잠시 후,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다.

‘일시 정차’도 운전 중이라고?

사건은 경찰의 수사를 거쳐 법정 싸움까지 옮겨졌다. 1심 법원은 정국의 행동을 단순 폭행으로만 보았다. 차량이 멈춰 있었던 만큼 ‘운행 중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사는 항소했다. 2심 법정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정국은 안도했고, 준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법정에서 마주 앉았다.

준호는 증인석에 앉아 어깨를 움츠린 채 당시의 공포를 떠올리고 있었다. 피고인 정국은 변호사 옆에서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밀쳤습니다. 차량은 신호대기로 잠시 멈춰 있었을 뿐, 여전히 도로 위에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운행 중’ 폭행에 해당합니다.”

정국은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아니, 차가 이미 멈춰 있었잖아요. 그냥 화가 나서 민 거지, 운전 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 행동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판사가 눈을 들어 피고인을 바라봤다.

“멈춰 있었다고요? 그 자리는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습니다. 피해자는 신호가 바뀌면 곧바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운전자를 공격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할 ‘운전석’

잠시 정적이 흘렀다. 판사는 판결문을 펼쳐들며 차분히 낭독했다.

“‘운행 중’이란 바퀴가 구르는 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호대기와 같은 일시 정차 상태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국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그냥 화가 났을 뿐입니다. 운전 중이라는 걸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대법원의 공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처벌한다’, 제2항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다시 사건의 현장을 짚었다.

“피해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주문이 낭독됐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정국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섰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국을 부를 차례였다.

잠간의 분노가 어떤 사고를 초래할 수 있었는지, 또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본 원고는 운전 중 운전자 폭행 사건에 관한 판결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겨울철 올바른 히터 사용법

당신이 궁금했던 올바른 자동차 히터 사용법

글 김태영(자동차 저널리스트)

보통 운전자라면 매년 겨울마다 각종 궁금증이 떠오른다. 자동차 엔진 예열 관련 문제나 히터 사용 시 앞 유리에 생기는 김서림 현상,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효율성 저하처럼 평소 겪지 않던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겨울에도 '반짝'하고 궁금했다가 봄이 오면 또 잊어버릴 그럴 내용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올바른 히터 사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해본다.

자동차 히터 이렇게 작동한다

자동차 히터는 뜨거워진 엔진의 열을 이용해서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엔진은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고열이 발생한다. 이때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순환을 시작한다. 기관 본체 안쪽에서 관을 따라 밖으로 돌며, 기관이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히터는 냉각수가 히터 코어(냉각수 통로)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전동 팬이 실내로 유입시키는 원리로 작동한다.

엔진이 없는 순수 전기차는 세라믹 발열체를 사용하는 히터(PTC)나 히트 펌프 같은 보조 장치에 전기를 공급해서 열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발생한 열에너지는 히터 팬을 통해 실내로 데워진 공기 형태로 유입

된다. 이런 과정으로 일부 전기차는 별도의 예열 없이도 거의 곧바로 히터가 작동한다. 다만 내연기관 엔진과 다르게 보존된 열에너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효율성이 낮아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히터 사용 전 엔진 예열은 필수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는 겨울철 초기 시동 후 히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까지 최소 3~5분이 걸린다. 앞서 자동차 히터가 뜨거워진 냉각수 열을 활용한다고 설명한 것처럼 히터가 정상 작동하려면 냉각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야 한다. 보통은 시동 후 2~3분 후에 계기판 냉각수 온도계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부터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물론 시동 직후엔 히터를 꺼두어야 한다. 엔진에서 전달되는 열을 중간에 빼앗을수록 찬바람이 나오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다.

히터를 강하게 사용할수록 연비는 나빠진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히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의미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연료를, 순수 전기차에서는 고전압 배터

리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래서 히터를 사용할 때 높은 온도와 강한 바람으로 작동할수록 연료(전기 에너지) 효율성은 떨어진다. 덧붙여, 자동차의 좌석이나 운전대에 들어 있는 열선 장치 역시 전기를 많이 써서, 연료(또는 전기)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자동차 앞 유리 김서림 해결 방법

히터를 사용하면 자동차 앞 유리에 김이 서린다. 차 안과 바깥의 온도 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히터를 켤 때 에어컨디셔너 버튼(A/C)을 함께 누르는 것이다. 보통은 에어컨디셔너는 여름철 차가운 공기를 만들 때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히터와 함께 사용도 가능하다. 그러면 히터 장치의 압축 장치가 작동하면서 습기를 없앤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 앞 유리 김서림 현상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물론 그만큼 연비에는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아무리 에어컨디셔너를 사용해도 시간이 지나면 외부와 온도 차이로 다시 김이 서린다. 따라서

20~30분마다 창문을 조금씩 열어서 적당히 환기시키며 히터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이다.

히터 사용 시 외기와 내기 순환을 적극 활용하자

겨울철에 자동차 히터를 사용할 때 '외기 순환'과 '내기 순환'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기 순환은 자동차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를 막는 기능으로, 히터와 병행해서 사용하면 실내 온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장시간 내기 순환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실내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며 졸음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현상도 발생한다. 따라서 겨울철에 자동차 히터를 사용할 때는 20~30분 간격으로 외기 순환으로 전환해서 외부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게 하는 것이 좋다. 외부 공기가 정상적으로 순환되면 히터 작동 중에도 실내 온도가 일시적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때 온도 변화가 몸으로 느껴진다면 다시 내기 순환 모드로 전환해 사용하자.



교통 혼잡의 해법

스마트 주차, 도심을 바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등록 자동차는 2천6백만 대를 넘어섰다. 이제 주차 공간 부족은 도시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난제다.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최근 도심의 교통 관리 전략에서 핵심 축으로 떠오른 것이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다.

글 편집실



주차 공간 탐색, 교통체증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서울 도심의 교차로. 교통체증으로 이미 답답한 가운데,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다. 주차 공간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차량들이다. 실제로 국토부 교통정책 연구에 따르면 도심 차량 문제의 약 30%가 목적지 도착 후 주차 공간 탐색과 관련된 비효율적 운행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사물 인터넷(IoT)¹⁾ 센서와 영상 인식 장치로 빈 공간을 자동 탐지해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여기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접목하면, 운전자는 출발 전 미리 목적지 인근 주차장을 예약하고, 도착 즉시 바로 주차가 가능하다. 결제 또한 앱에서 즉시 처리해 별도의 대기나 현장 결제가 불필요하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반 예측 주차 기능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예컨대 특정 시간대 특정 상권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을 미리 확보하거나, 교통 신호체계와 연계해 '분산 주차'를 유도하는 방식

1) 사물인터넷(IoT, the Internet of Things):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은 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기술

이다.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에서도 ‘교통·주차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국내 도시의 변화, 스마트 주차의 첫 발걸음

국내 곳곳에서 스마트 주차는 이미 현실이 됐다. 서울 강남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IoT 센서를 설치하고 앱을 활용해 빈 공간을 주민끼리 공유한다. 2023년 1분기까지 누적 이용 건수가 1만6천 건을 돌파할 만큼 호응이 뜨겁다.

서울 관악구는 앱을 통해 공영주차장 점유 현황을 실시간 공개한다. ‘들어갈 수 있나?’하며 두리번거릴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서울 금천구의 ‘그린파크 사업’은 개인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며, 이웃 간 공간 공유 모델로 진화했다. 영등포구는 전기차 충전소에 영상 인식 장치를 설치

했다. 비전기차가 자리를 차지하면 자동 감지해 경고하고, 필요 시 과태료로 이어진다. 주차 관리와 친환경 정책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다.

무엇보다 안전 효과도 크다. 위반 차량을 실시간 추적해 불법 주차를 줄이고, 보행 공간 확보에 기여한다. 국토부는 2024년, 인천 송도와 부천 지역에 스마트 주차 로봇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주차장은 이제 단순히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 아니라,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알아서 최적의 자리를 찾는 ‘무인 관리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기술이 확산되면, 주차장은 단순 주차장의 개념을 넘어 자동차 물류 허브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는 차량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데이터 수집, 배달용 드론 연계 등 도시 기능과 결합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세계 각 도시가 찾은 해답

세계 도시들도 비슷한 고민 속에서 다른 방식의 해답을 찾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교통체증의 주범인 불필요한 차량 순환 운영을 잡았다. ‘SFpark’ 프로젝트로 시간대와 구역별 수요에 따라 주차 요금을 차등 부과한 것이다. 단순히 요금을 바꿨을 뿐인데, 주차 공간 탐색 시간은 약 30%나 줄었고, 배출가스 감소 효과도 입증됐다.

스페인 덴시아시는 도시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 상권 주변에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인 것. 상점 접근성이 개선되자 방문객이 늘고, 동시에 도심 교통 흐름까지 부드러워졌다.

인도 누이다시는 공간 부족을 기술로 극복했다. ‘퍼즐형 자동 주차장’을 도입해 협소한 부지에 100대를 동시에 수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차량 입출고는 3~6분이면 충분하다. 좁은 땅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혁신 사례다.



세 도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주차장이 더 이상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도시 운영 체계의 일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우리나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 주차는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공유차 전용 공간 등과 결합할 전망이다. 이미 서울시는 ‘IoT 공유주차 플랫폼’을 확대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교통 빅데이터와 통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결국 주차장은 단순히 차를 세우는 장소가 아니라, 도시 안전을 지키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데이터를 저장·분석하는 ‘스마트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스마트 4차 시스템이 도심 혼잡, 교통안전, 환경부담까지 한꺼번에 풀어내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2024)
국토교통부,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규제 특례 승인」 보도자료(2020.10.19.)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정책 자료(2019.7.14.)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스마트 공유주차 운영 성과」 보도자료(2020.5.23.)
관악구청, 「공유주차 사업 추진」 보도자료(2025.3.4.)
금천구청, 「공유주차 사업 추진」 보도자료(2024.12.10.)
영등포구청,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 시스템」 보도자료(2022.11.23.)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 「SFpark Evaluation Report」
스페인 덴시아 시청, 「New Smart Parking System」
인도 누이다 시청, 「Automated Puzzle Parking Project」

6화



권상민 작가와 함께하는

안전툰

글·그림 권상민

도로 위 암살자,
도로 살얼음 주의!



도로가 반짝인다면
도로 살얼음을 의심하세요!

호동이 말한 대처방법, 세 번 정독하세요!

1. 감속 운행,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2.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눠서 밟기
3. 부드럽게 운전대와 페달 조작하기

겨울의 고요 속, 가까이서 만나는 심포 여행지

산과 강,

전통이 만나는 도시

경기 양평

이맘때 양평은 소리보다 침묵이 먼저 다가온다. 강가를 감싸는 물안개와 눈 덮인 정원, 고목의 그림자 아래 스미는 숨결까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이 도시는 잠시 멈춰 서기 위한 이유로 충분하다. 하얀 숨결이 퍼지는 강가에서 시작해, 자연의 정원과 전통의 향기가 어우러진 길 위로, 양평의 겨울은 스산해진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여운을 남긴다.

글 차은서 사진 남윤중(studio51)

두물머리, 강이 품은 새벽의 정적

하늘과 강이 맞닿은 곳, 두물머리의 새벽은 유독 조용하다. 해가 떠오르기 전 강 위로 자욱이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마치 꿈결처럼 흐르고, 나이 든 느티나무 한 그루가 그 모든 장면을 묵묵히 지켜본다. 수면 위를 스치는 찬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은 멈추지 않는다. 누구는 사진을 찍고, 누구는 그저 강물 소리에 귀 기울인다.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이곳에서, 겨울은 고요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으로, 그 이름처럼 ‘두 물이 만나는 머리’라는 뜻을 지닌다. 사계절 모두 다른 얼굴을 보여주지만, 겨울의 두물머리는 특별하다. 잔잔한 물결 위에 내려앉은 눈, 그리고 그 위로 번지는 은빛 안개. 자연이 만

들어낸 가장 순수한 풍경이 여기 있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 강 위로 떠오르는 해와 함께 세상이 조금씩 밝아온다. 이른 아침의 찬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언 강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오리들의 날갯짓까지.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느껴진다. 두물머리는 그렇게, 고요 속의 움직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운다.



두물머리

-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 지하철 경의중앙선 양수역 하차 후 도보 약 30분
- 두물머리제5공용주차장 무료



세미원, 자연이 그린 겨울의 정원

두물머리와 이어지는 세미원은 ‘물과 꽃의 정원’이라는 이름처럼, 자연이 그려낸 평화로운 풍경이 가득한 곳이다. 여름에는 연꽃으로 가득하지만, 겨울의 세미원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눈이 내린 정원 위로 바람이 스치면, 마른 연잎 사이로 은은한 소리가 퍼진다. 연못 위를 덮은 눈은 얼음빛으로 반짝이고, 고요한 수목들은 하얀 숨결을 품은 채 겨울을 견딘다. 그 풍경은 차갑지만, 그 안에 깃든 생명의 기운은 여전히 따뜻하다.

세미원은 단순한 식물원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 정원이다. 물이 깨끗하면 마음도 맑아진다는 뜻처럼, 곳곳에서 물길이 이어지고 수생 식물이 자라난다. 나무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눈 내린 정원을 배경으로 예술 작품처럼 놓인 정자와



연못이 시선을 끈다. 연잎 위로 작은 다리를 건너며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고요한 물 위에 비친 하늘빛이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진다. 겨울의 세미원은 비록 꽃이 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전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잠시 멈춘 듯한 이 정원은, ‘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세미원

- 📍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 🕒 오전 9시~오후 6시 (동절기 기준)
- 💰 성인 7,000원, 5세 이하 무료
- 🅐 양평공영주차장(용담제1주차장) 무료



지평향교, 선비의 숨결이 머무는 곳

양평의 겨울 여정이 마무리되는 곳, 지평향교에 이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기와지붕이 가지런히 어지고, 붉은 대문 너머로 선비들의 기상이 느껴진다. 조선시대 지방 교육의 중심이었던 향교는 학문과 예절을 가르치던 공간이었고, 지금은 그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방문객이 많지 않은 겨울철의 향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간 여행지다. 고요한 돌계단을 오르면, 세월의 곁이 배어 있는 나무 문짝과 단청의 색이 눈 속에서도 은은하게 살아난다. 지평향교는 오랜 세월에도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향교 앞마당에는 은행나무 두 그루가 마치 수호신처럼 서 있다. 봄에는 푸르고, 가을에는 황금빛으로 물들지만, 겨울의 향교는 그 어떤 계절보다 단정하고 아름답다. 마당 한켠의 툇마루에 앉으면 매

서운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겨울의 적막을 깨운다. 그 속에서 문득 ‘쉼’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선비들의 숨결이 머물던 공간, 고요한 학문의 자취는 여전히 이곳에서 시간의 곁을 따라 흐르고 있다.



지평향교

-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로 333
- 🌟 1983년 9월 19일(경기도 문화유산자료 제20호)
- 🕒 상시 개방, 무료 관람 가능
- 🅐 지평향교 입구 공영주차장 무료

하얀 나무가 속삭이는 길 자작나무숲

겨울이면 순백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숲. 맑은 공기와 수직으로 뻗은 하얀
나무가 빼곡한 풍경은 겨울에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선물과도 같다.

글 편집실



❷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1974년부터 20여 년간의 조림 사업으로
탄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숲. 약
69만 그루가 빼곡히 자리하며 치유·탐험·
힐링 등 다양한 코스로 나뉜 탐방로가 있
다. 숲 입구에서 본격적인 숲길까지는 도
보 1시간가량 걸리며, 겨울 설경은 특히
압도적이다.

❶ 강원 인제군 인제읍 자작나무숲길 760
자작나무숲 안내소



❶ 원주 석강 자작나무숲

석강변에 약 5만 3천 그루가 심어진
숲으로 4km 둘레길이 조성돼 있다.
산책 위주로 즐기기에 좋은 코스로, 물
길과 숲이 어우러져 한 시간 남짓 걷
기 알맞다.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도
뛰어나다.

❶ 강원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117-7



❸ 태백 지리골 자작나무숲

옛 탄광 자락을 복원해 조성된 자작나무
군락으로, 사계절 내내 고요한 흰 숲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지리골길 17(하
이원태백북지관) 우측길을 따라 30~40
분 오르면 숲길이 열려 가볍게 걷기 좋다.

❶ 강원 태백시 황지동 산178



❹ 김천 수도산 자작나무숲

국립김천치유숲 안에 자리해 있으며, 자작나
무와 잣나무·참나무 등이 어우러져 있다. 2019
년 개장 이후 명상, 해먹 체험, 웰니스 프로그램
과 함께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비교
적 조용해 휴식에 적합하다.

❶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1237-89



❺ 경북 청송 화장리 자작나무숲

1996년 무표산 자락에 조성돼 10ha에 3만 그루가
자리하며,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선정됐다. 완만
한 A코스(2km)와 B코스(1.1km)로 나뉘어 남녀노소
걷기 좋고, 천연림과 어우러진 경관이 매력적이다.

❶ 경북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산11-1



❻ 경북 영양 죽파리 자작나무숲

검마산 자락에 1993년부터 조성된 숲으로 약 12
만 그루가 20m 이상 자라 숲을 이룬다. 30ha 규
모에 2km 산책로, 숲 힐링센터와 전망대가 갖춰
져 있으며 전기차 셔틀 등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
다. 언택트 힐링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❶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39-1

세계가 주목한 독특한 횡단보도 디자인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시설이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이 단순한 시설에 창의적인 디자인과 문화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착시 효과로 운전자의 속도를 늦추고, 무지개빛으로 다양성을 상징하며, 예술 작품처럼 거리를 채우는 횡단보도까지. 작은 길 위의 변화가 도시의 안전과 풍경을 바꾸는 사례들을 만나보자.

글 편집실 출처: 아이슬란드 이사피외르뒤르 시청(www.isafjordur.is), 언론사 BBC News, 프랑스 파리 시청(www.paris.fr), 언론사 The Guardian, 벨기에 브뤼셀 시청(www.brussels.be), 언론사 The Brussels Times, 독일 슈말칼덴 시청(www.schmalkalden.de), 언론사 FAZ, t-online, 인도 아마다바드 시청(ahmedabadcity.gov.in), 언론사 India Today



아이슬란드

3D 착시 횡단보도

아이슬란드 북서부의 작은 항구 마을 이사피외르뒤르(Ísafjörður)에는 3D 착시 효과를 활용한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흰색 줄무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단순한 도색이지만 '시각적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하며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관광객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프랑스 파리

아트 횡단보도

예술의 도시 파리는 횡단보도마저 캔버스로 바꾸었다. 시는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해 줄무늬에 색채와 패턴을 더한 아트 횡단보도를 도입했다. 단순한 안전 시설이 아닌 예술적 체험의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보행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운전자에게 시각적 환기를 제공한다. 이는 공공디자인이 안전과 미관, 그리고 도시 정체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벨기에 브뤼셀

레인보우 횡단보도

2021년 5월, 벨기에 브뤼셀의 연방 의회(Parliament)와 브뤼셀 공원(Brussels Park)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가 국제 동성애 혐오·트랜스포비아 반대의 날(IDAHOT)에 맞춰 무지개 색으로 도색되었다. 연방 하원과 상원, 브뤼셀 시청이 협력한 사업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공공 행위로서 상징성과 시각적 효과가 드러났다. 다수 지자체가 유사한 횡단보도를 상시 또는 이벤트성으로 운영 중이며, 브뤼셀 시 내에서는 해당 횡단보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슈말칼덴

3D 착시 횡단보도

2018년 4월 말, 독일 튀링겐주 슈말칼덴(Schmalkalden)의 발펠로(Walperloh) 주거지구에는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본뜬 3D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흰 줄무늬가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도색해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설치 직후 운전자와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독일 도로교통규칙(StVO)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시설은 철거된 것이다. 짧은 기간 운영에 그쳤지만, 안전 강화와 디자인의 균형을 고민하게 한 실험적 시도로 기록됐다.



광학 착시 횡단보도

인도 아마다바드(Ahmedabad)에는 멀리서 보면 도로 위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 듯 보이는 횡단보도가 있다. 검은색과 흰색의 강한 대비로 입체적 블록처럼 보이게 해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인다. 다만 지나치게 강한 착시 효과가 운전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실험적이면서도 논란이 된 사례로 남아 있다.



인도 아마다바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약속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31건 발생했고, 1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나와 타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 편집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공통1교육>, <음주공통2교육>, <음주심화교육>

알코올이 운전
미치는 영향

- 이성적 판단 저하**
전두엽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 공간감각 저하**
소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보행이나 차량 조작이 불안정해진다. 운전자가 차량의 폭과 길이를 가늠하여 주행이나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두정엽의 기능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두정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도로 상황에 맞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 시각기능 둔화**
알코올의 영향을 받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저하되어 위험을 발견하는 시간이 지연된다.
- 균형감각 저하**
술을 마셔서 소뇌에 손상이 오면 운동기능이나 평형감각을 조절할 수 없어서 정밀하게 움직일 수 없게 되며, 걸음걸이도 불안정하게 된다.
- 반응시간 지연**
술을 마시게 되면 운전 시에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반응시간이 길어져 브레이크를 그만큼 늦게 밟게 되어 정지거리가 길어지게 된다.



음주운전 주요 결정요인

38.9%	17.9%	15.1%	14.9%	5.1%	3.5%	1.9%	1.4%	1.1%	0.7%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	음주 후 시간이 경과되어서	집과의 거리	비용 부담 (택시, 대리운전)	이동 시의 불편함	운전실력에 대한 자신감	차량손상이나 견인 우려	음주단속의 가능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주위의 시선

(2021년,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아래 문장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 ① 혈중알코올농도 % 이상이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 ② 음주 시 기능이 저하되어 차량 조작이 불안정해진다.
- ③ 음주운전 주요 결정요인 중 가 38.9%로 가장 많은 음주운전의 이유로 나타났다.
- ④ 술을 마시면 위험을 인식하고 제동을 밟는 시간이 길어져 가 늘어난다.
- ⑤ 음주운전자는 자신의 을 과신하여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⑥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는 이다.
- ⑦ 음주운전은 반복적인 음주와 부족으로 인해 습관화된다.

- 8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하루 평균 건 발생했다.
- 9 음주운전 차량에 한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10 70kg 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 병은 약 시간, 두 병은 16시간 이상이 지나야 분해된다.

정답

8 ㉠ 우물 ⑥ 1ㄹ ⑧ ㄴㄹㅅㅅㅅㅅ ㉡ ㄱㄹㅅㅅㅅㅅ ⑨ ㄴㄹㅅㅅㅅㅅ ⑤ ㄴㄹㅅㅅㅅㅅ ⑦ ㄱㄹㅅㅅㅅㅅ ㄴㄹㅅㅅㅅㅅ ⑩ ㄴㄹㅅㅅㅅㅅ ㉢ ㄴㄹㅅㅅㅅㅅ ㉣ ㄴㄹㅅㅅㅅㅅ

치명적 사고 사례

사례 1

2021년 강원 고성에서는 한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동승자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례 2

2018년 경기 구리 강변북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의 운전자가 고속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토막 상식

운전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구

운전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 인 운전자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운전자보다 500배나 불필요한 차로 변경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향 장치와 같은 자동적 조작에서도 알코올 섭취는 문제를 일으키고, 고차원적인 정보처리에도 손상이 왔다.



취하는 시간과 깨는 시간

확산기	분해기	적응기
술이 몸에 퍼지는 시기. 취했다는 느낌을 받음	술이 깨는 단계. 술 한잔 당 한 시간씩 분해	취한 상태이지만 깬 것 같은 착각 단계



1잔

평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0.015%

분해하는데 필요한 평균 시간
1시간



1병(7~8잔)

평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0.125%

분해하는데 필요한 평균 시간
8시간



2병

평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0.25%

분해하는데 필요한 평균 시간
16시간

※ 단, 성인 70kg 남성(알코올 도수 19%) 기준. 신체적, 심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부분을 촬영해 주세요 >

교통안전 실천 다짐

이름: _____

획득 점수: _____

점

느낀 점: _____

한 줄 다짐: _____



신호등과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을 스스로 풀어보고, 45쪽 교통안전 실천 다짐을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름,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hongbo@koroad.or.kr

일상의 이동일까 매일의 도전일까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겪는 대중교통의 현실은 다르다. 일상의 편리함과 불편함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느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시선 차이를 확인해 본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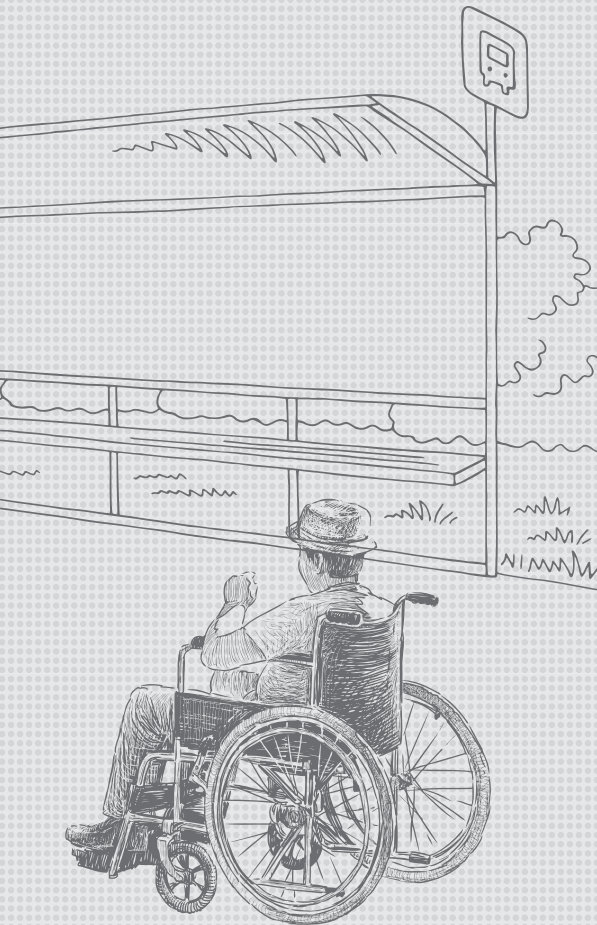
장애인 V S 비장애인

“대중교통은 모두의 발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수단인 만큼 양보와 배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A씨

저는 버스를 한번 타기 위해 몇 대의 버스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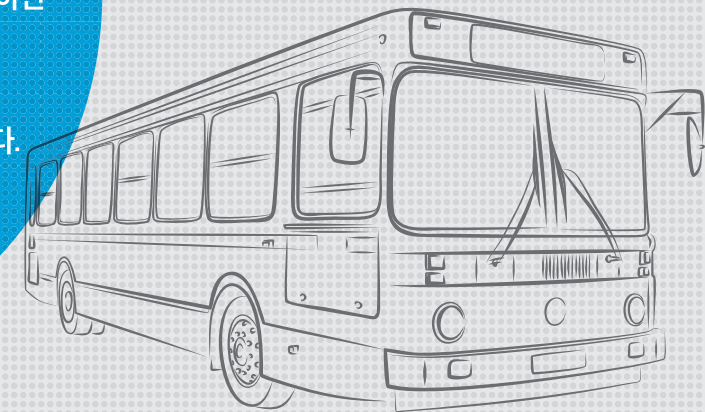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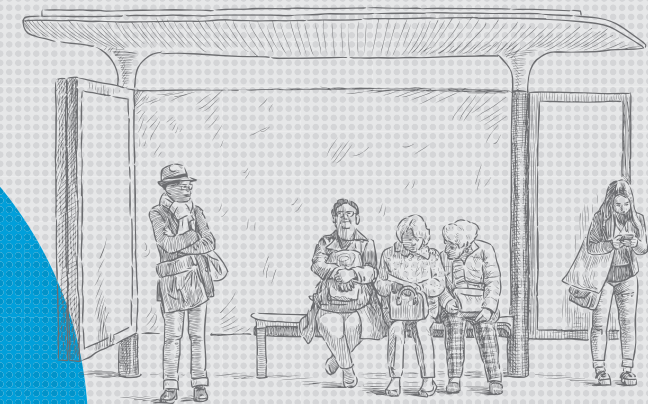
저상버스가 아니라면 아예 오르지도 못하고요.
설령 저상버스가 도착해도 쉽지 않습니다.
경사판이 내려오고 승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동안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마저도 출근하는 사람들로 만원인 버스라면 휠체어가 탈 자리는 남아있지 않죠.
사람들은 그저 몇 분 지체되는 거겠지만, 저에겐 그 몇 분이 모여 하루의 큰 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비장애인 B씨

출근길 버스는 늘 분주합니다.
한 대라도 놓치면 지각이니깐요.

이미 만원인 버스에 몸을 욱여넣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런데 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기다리는 장애인을 마주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배려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바쁜 출근길에 몇 분이 길어지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한숨이 튀어나오는 게 사실이죠.



약물 운전 예방 수칙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수칙>(2024), <어르신 안녕하십니까?>(2024)

1

약물이란?

사용 후 인체 기능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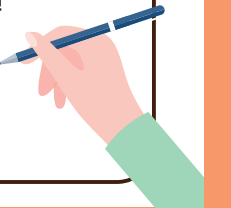


일부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주의,
시력, 인지, 신체조절 및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정신 및 행동 변화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준다.

3

약물복용 습관 자가진단

- ☑ 현재 복용 중인 약, 복용 방법, 사용 목적, 복용 기간 등에 대해 알고 있다.
- ☑ 감기약, 비염약, 수면제 등은 운전을 하지 않는 저녁에 복용한다.
- ☑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한다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 점은 없는지 담당의사나 약사와 상의한다.
- ☑ 약 복용 후 졸음이나 피로감, 어지러움을 느꼈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다.
- ☑ 새로 처방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있다.
- ☑ 안전한 약물복용을 위해 복약 수첩 등을 활용한다.



2

약물 운전 예방법



약을 처방받을 때는 약사나 의사에게 용법과 복용량,
부작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용법과 복용법을 반드시 따른다.



졸음 등 부작용이 확인되면 운전을 삼가거나
운전 전에는 복용을 피한다.

4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 | |
|------------------|---|
| 감기약, 비염약 | 졸음, 진정작용, 의식저하, 학습능력 저하, 반응시간 지연,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
| 진통제, 근이완제 | 어지럼증, 졸음, 방향감각 저하 |
| 혈압약 |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 |
| 당뇨병약 | 저혈당 쇼크, 실신, 식은땀 |
| 치매약 | 어지럼증, 운동기능 장애 |
| 항우울제 | 주의력 저하, 어지럼증, 졸음, 집중력 장애, 방향감각 저하 |
| 항불안제, 수면제 | 진정, 졸림,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평형장애, 주의력 장애, 건망증 |

배려는 보이지 않을수록 강하다 세계의 무장애 도시 디자인

도시는 거창한 조형물보다 '20mm의 세심함'으로 달라진다. 계단 대신 미세한 경사, 높이를 맞춘 버튼과 손잡이, 끊임 없는 점자 유도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는 표식 언어. 무장애 디자인의 진가는 그런 친절함이 모여 완성된다.

글 차은서

독일 베를린

단차의 미세 조정이 만든 큰 변화

독일 베를린은 교통약자 중심 정류장 설계를 제도화한 대표 도시다. 슈판다우 지역에서는 버스 정류장의 보도턱과 플랫폼 높이를 저상버스에 맞춰 휠체어도 별도 장치 없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류장마다 점자 블록과 유도선을 규격화해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개선 과정 전반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시설 개선을 넘어 도시 교통 인프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Wunderlich Urban Development

덴마크 코펜하겐

'평평한 도시'의 정보 설계

덴마크 코펜하겐은 평탄한 도시 구조를 활용해 보행로부터 대중교통까지 이동 동선을 하나로 설계했다.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설치돼 있고, 보행로에는 매끈한 포장 스트립이 이어져 휠체어 주행

이 쉽다. 축지도와 안내 표식도 통합 패턴으로 설계돼, 물리적 평탄함과 정보 접근성을 함께 구현했다.



©Troels Heien Visit Copenhagen

그리스 코모티니

도심 전체를 연결한 20km 무장애 네트워크

그리스 코모티니는 도심 전체를 잇는 무장애 보행 네트워크로 주목받는다. 약 20km의 무장애 보행로를 구축하고, 공공건물의 75% 이상을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교통 인프라는 스마트앱으로



©urbact.eu

실시간 안내되며, 장애인 커뮤니티가 직접 정책 운영에 참여한다. 단일 시설이 아닌 도시 전체가 연결된 '생활권 배리어프리' 모델이다.

일본

시설 단위의 '완결형' 배리어프리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배리어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공항과 철도, 상업시설엔 경사로와 손잡이, 점자 표지, 비상벨, 장애인 화장실이 기본 설비로 포함된다. 특히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은 공항 전체를 무단차로 설계해 환승 구간 어디서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다.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표지와 축지도, 음성안내가 통합돼 '편의시설'이 아닌 인프라의 기본값으로 작동한다.



©나고야 배리어프리 여행 내비

부산

스마트시티가 붙은 '맞춤 내비'

부산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2022 부산 스마트시티챌린지 홈페이지

전용 내비게이션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지하철 단차, 저상버스 위치,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화면 높이를 자동 조절해 누구나 동일한 시야로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과 물리적 접근성을 결합한 도시형 모델이다.

서울 용산구

문화시설 중심의 체험형 무장애

서울 용산구는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중심의 무장애 환경을 조성했다. 구청과 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완만한 경사 진입로, 자동문, 점자 표지판, 높이조절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기본으로 설치됐다. 장애인 전용 객실과 수영장까지 포함된 복합시설은 '이용 가능한 도시'에서 '함께 체험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이끈다.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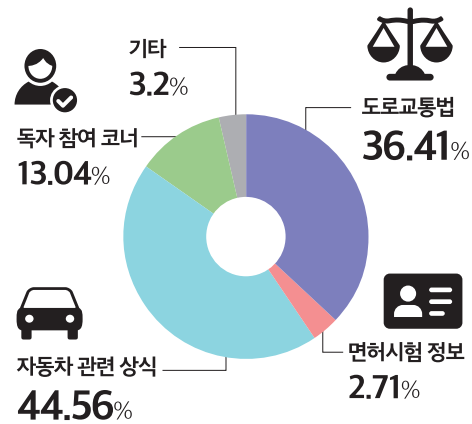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부산」 보도자료(2023.8.)
- 서울시 보도자료 「용산구 배리어프리 문화시설 확충 계획」(2024.3.)
- 공공디자인진흥원 「모두의 이동 환경을 위한 디자인」 기획 (2025.7.)
-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정책동향」 보고서 (2010.11.)
- 유밀 이주영 「배리어 프리 장애인 차별 없는 복지국가 독일의 오늘」 연구 자료 (2022.6.)
- URBACT 유럽도시계획플랫폼 「Accessible city for all」 프로젝트 보고서 (2024.1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의 배리어프리 관련 도시 정책 연구」 (2022.9.)
- 일본 정부 도쿄2020 「장벽 제거 배리어프리 정책」 자료 (2024.12.)
- 용산구청 「용산구 배리어프리-안전디자인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2025.2.)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자료」 (20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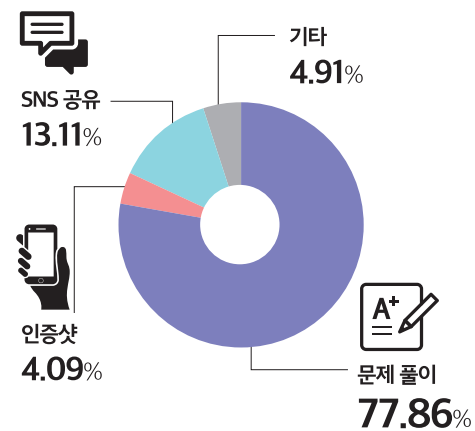
2025년 독자 설문조사 「신호등」 독자들의 의견은?

신호등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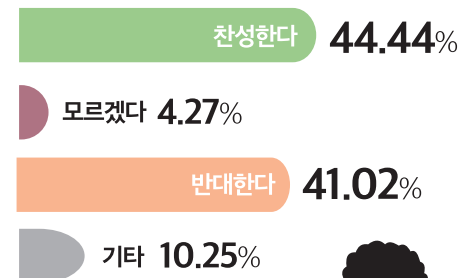
「신호등」을 통해 얻고 싶은
정보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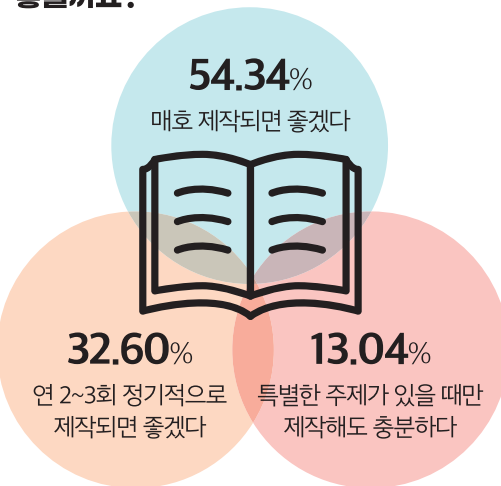
독자 이벤트로
어떤 형식을
선호하시나요?



독자 의견을 업서가 아닌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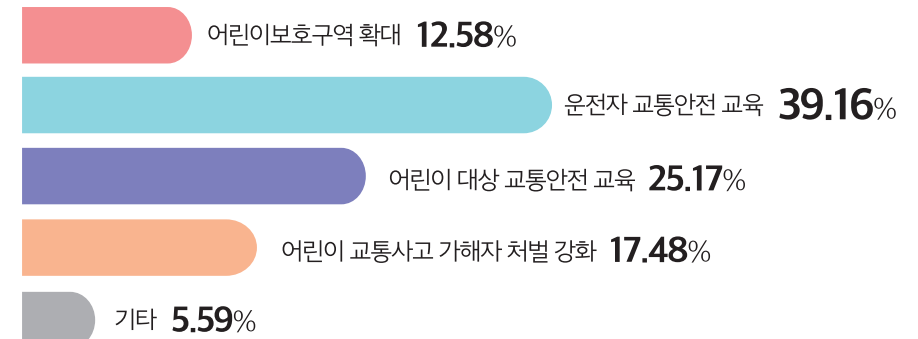


큰글씨 콘텐츠는
어느 정도 빈도로 제작되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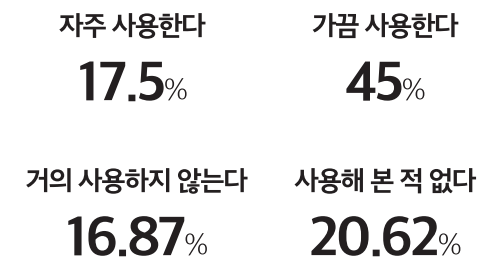


교통안전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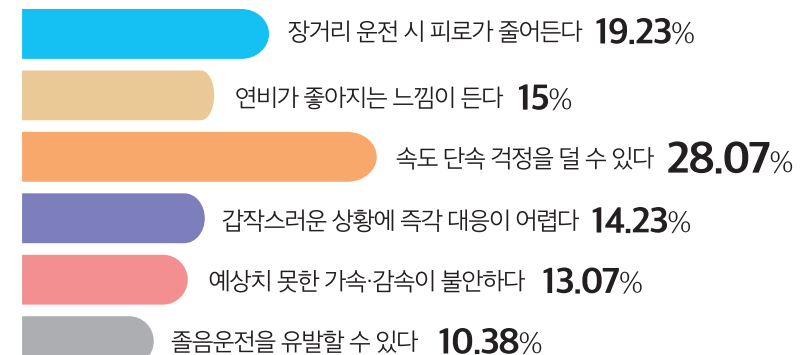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중복 응답)



설정된 차량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기능(크루즈 컨트롤)을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사용해 본 적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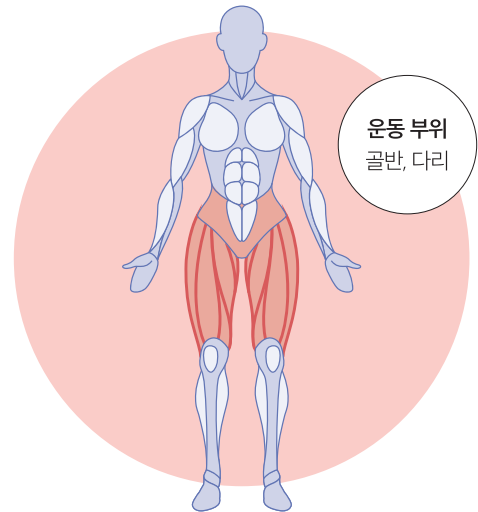
위 기능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중복 응답)



골반과 다리를 교정하는 필라테스 동작

틀어진 골반과 다리는 허리 통증과 체형 불균형의 원인이 된다. 하루 10분 투자로 예쁜 하체 라인과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 세 가지 필라테스 동작으로 집에서도 다리 교정을 할 수 있다.

강사: 한진영 사진: 남윤중 장소제공: 대한민국 필라테스



두 번째 동작 싱글 레그 브릿지 (Single Leg Bridge)

- ①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뒤꿈치를 무릎과 발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둔다.
- ② 허벅지 앞쪽 힘으로 한쪽 다리를 천장으로 길게 뻗는다.
- ③ 양손으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 지지하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힘을 줘서 골반을 천장쪽으로 들어올려 좌우 균형을 맞추고 요추를 안정화한다.



좌·우 각각 10회 3세트



강사의 도움말

-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뻗은 다리는 위로 길게 뻗는 힘을 유지합니다.
- 고관절이 접히는 부분을 펴내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동작 와이드 스쿼트 (Wide Squat)

- ① 두 발은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발끝은 11시, 1시 방향으로 바깥을 향하게 둔다.
- ② 무릎은 발끝 방향과 같이 대각선을 향하도록 한다.
- ③ 엉덩이를 그대로 앉으면서 허벅지 안쪽을 늘리고, 엉덩이 바깥쪽에는 다리를 벌리는 힘을 준다.
- ④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조여 골반 안정성을 높이고, O자형 다리 개선에 도움을 준다.



10~12회 3세트



강사의 도움말

- 엉덩이를 낮출 때 뒷꿈치가 뜨지 않습니다.
- 허리를 곧게 세우고 복부에 힘을 유지하며 앉을 때 허리가 과하게 뒤로 꺾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세 번째 동작 더블 피전 (Double Pigeon)

- ① 바닥에 앉아 무릎을 세운다.
- ② 한쪽 다리를 옆으로 접어 세운 다리 뒤쪽에 놓히듯 둔다.
- ③ 반대쪽 다리를 그 위에 수평으로 겹쳐 올린다.
- ④ 양쪽 다리가 최대한 평행을 이루도록 정렬해 골반 주변 근육을 자극한다.
- ⑤ 상체를 곳곳이 세워 자세를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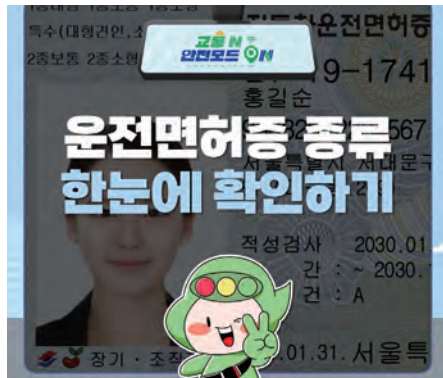


좌·우 각각 30초 유지, 3세트



강사의 도움말

- 가능하다면 상체를 앞으로 길게 숙이면서 깊게 호흡해 보세요.
- 다리 정렬이 어렵다면 척추를 깨끗하게 세운 채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이렇게 다양해?!
다양한 운전면허증. 종류별, 용도별로 알아볼까요?



방심은 NO! 보행자 보호의무 확인하세요!
운전자라면 필독해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동물 찾길 사고 급증! 야생동물도 보호해주세요
도로 위 야생동물 표지를 발견하면 감속하며 야생동물 등장에 대비해주세요.



교차로 우회전, 이렇게 하면 100점!
아직도 헛갈리는 사람을 위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도로 파임 행동 요령
횡단보도에서 도로 파임 발견하면 이렇게 하세요!



음주운전 근절,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르신~ 이것만 지켜주세요!
어르신을 위한 안전수칙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안전인이다
고령보행자 교통사고율 최저 동네의 비결을 배워봅시다!

1

경북 북부권 운전면허 행정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요!’ 안동운전면허센터 개소, 10월 24일부터 정식운영

-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안동시, 안동과학대학교 사회관에 운전면허센터 마련
- 매주 화요일·금요일 운영, 경북 북부권 주민 운전면허 시험·갱신 편의 향상 기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0월 22일 경북 안동시 서후면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안동운전면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안동, 예천, 봉화, 영주, 의성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운전면허시험장이 멀어 문경이나 대구 등으로 왕복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4년 안동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의와 준비를 거쳐 국민 체감형 운전면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동운전면허센터를 개소했다.

안동운전면허센터는 오는 10월 24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안동과학대학교 사회관 4층(약 85평)¹⁾ 공간에 학과시험장, 교통안전교육장, 민원접수실,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전면허 학과시험,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운영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점심시간은 12:00~13:00, 학과시험 접수 마감은 오전 11시와 오후 4시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 또는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김희중 이사장은 “안동운전면허센터 개소로 경북 북부권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1) 안동운전면허센터 주소: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 사회관 4층

2

농기계 치사율 승용 차종보다 15배나 높아 “짧은 거리라도 안전띠 꼭 매야”

-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15.4... 농기계 단독사고 치사율은 36.9에 달해
-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의 4.8%만 안전띠 착용한 것으로 확인



사망자의 88.8%인 222명으로 집계됐다. 치사율은 36.9로, 농기계를 제외한 전체 차종 단독사고 치사율(7.5)의 5배 수준에 이른다.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띠를 착용한 사망자는 12명, 착용하지 않은 사망자는 93명으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가 착용 사망자의 7.8배에 달했다. 농기계가 저속임에도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안전띠 등 보호장구가 없기 때문으로, 농기계 보호장구 보강이 필요하다.

농기계 교통사고를 연령대별로 보면 운전자의 73.6%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는 시력과 청력 저하, 인지반응 시간 증가로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출발 전 제동장치, 등화장치, 반사판 등 안전장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적재물은 단단히 고정하고 술을 마셨거나 피로한 때는 운전을 삼가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가을철에는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라며, “농기계는 전복 시 탑승자가 밖으로 튕겨 나가기 쉬워 짧은 거리나 저속 운행이라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이용이 늘어나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치사율이 높은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농기계 단독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36.9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1,628건, 사망자는 250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15.4로, 농기계를 제외한 전체 차종의 교통사고 치사율(1.4)의 11배에 달했다.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의 충돌 사고가 아닌 △공작물 충돌 △도로 이탈 추락 △전도·전복 등의 단독사고에서 발생했다. 단독사고 사망자는 전체 농기계 교통사고

3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경륜선수용입니다! 중학생 대상 안전한 자전거 탑승문화 교육 실시

- 한국도로교통공단, 원주자전거연맹과 함께 교통안전강의 및 시범교육 진행
- 중학생 427명 참여... 시범교육으로 픽시자전거의 위험성 알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1일 반곡중학교와 12일 지정중학교에서 중학생 427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자전거 탑승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잇따른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응해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안전강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수가 진행했으며, 시범교육은 원주자전거연맹이 맡아 학생들에게 일반·픽시 자전거의 정지거리 차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전거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 실제 주행 시범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특성과 위험성을 확인하며 올바른 이용 방법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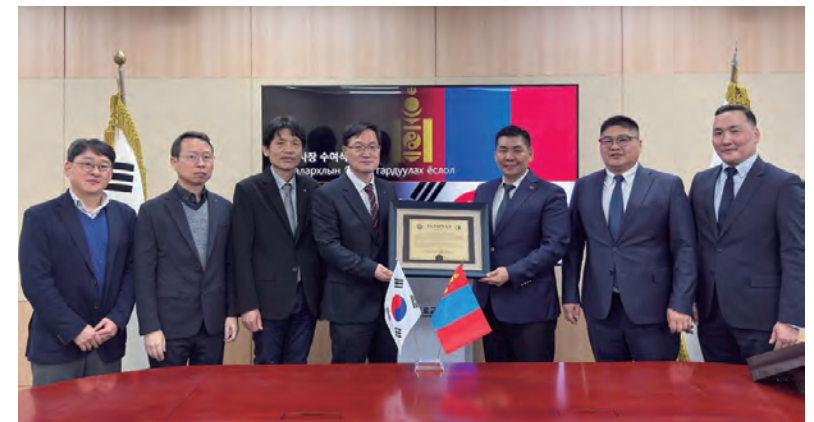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자전거도 차!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도로에서 타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고, 선생님과 안전모를 꼭 쓰고 자전거를 타기로 약속했어요!”라고 교육소감을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을 학생들이 직접 보며 체험하도록 자리를 마련했으며, 안전한 자전거 문화 형성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4

한국도로교통공단, 몽골 사법기관 신뢰도 향상 기여로 몽골 교통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몽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디지털 교통사고조사·분석 기법 적극 지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0월 21일 몽골 정부기관 방문단으로부터 몽골 교통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몽골 교통경찰청장을 대신해 한국에 방문한 몽골 정부기관 방문단인 교통경찰청 수사과장, 울란바타르 시의회 사무국장 등 4명이 직접 수여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 전문기관 공동으로 수행중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진행중인 ODA사업 이외에 몽골 국가과학수사청, 몽골경찰청, 국립과학수사청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몽골 법내무부 산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통사고 분석 방법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한국형 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몽골 교통경찰청은 기존 아날로그형 교통사고조사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교통사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단은 몽골 법내무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청과 협력하여 디지털 교통사고조사·분석 체계 전환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몽골 교통경찰청 허스바야르 수사과장은 “한국의 우수한 교통사고조사·분석 기법을 교육해줘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감사하다”며, “공단과 협력하여 몽골 사법기관의 신뢰도를 적극 향상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사고조사 노하우를 몽골에 전수하여 신뢰도 높은 몽골 사법기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율주행 도약” 10월 1일 17개 시·도 광역협의체 열렸다

- 산업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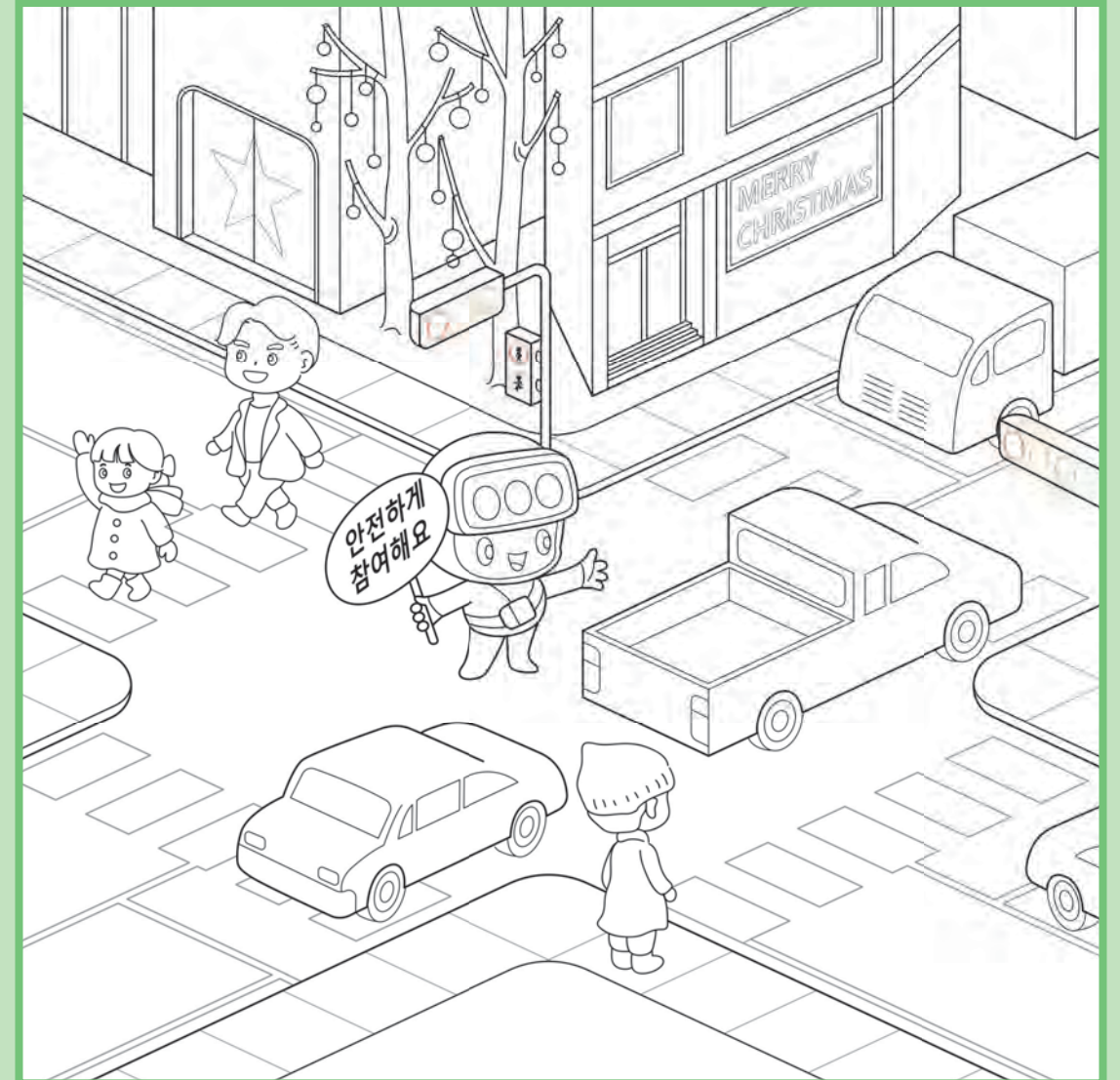
자율주행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일 경주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9.24)의 후속조치로, 그간 자율주행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해 자율주행 산업 도약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광역협의체에서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비혼잡 시간에 노선 단위로 소규모 실증을 진행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 엣지 케이스)을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 등과 같이 도시 단위로 제한 없이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100대 이상의 대규모 실증 시 택시, 버스 등 지역 운수업체와의 상생방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임 없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해소방안, 실증용 차량 플랫폼 제공 등 기업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자율주행차의 진출을 대비하기 위해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및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의 택시, 버스 등 운수사업자가 해외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차량의 운영부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자율주행 차량 원격 관제 등 모니터링, 차량 문제 발생 시 긴급출동 지원, 차량의 유지보수 지원 등 자율주행 차량에 특화된 서비스 산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해외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더라도 해외 기술이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내 서비스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 사이버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포함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이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호동이’와 함께 도로교통 안전 생활을 약속해요!

한국도로교통공단 마스코트 호동이는 교통안전 메신저입니다.
호동이를 예쁘게 색칠하면서 안전한 도로교통 생활을 약속해 봅시다.

그림을 정성껏 색칠한 후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2025년 12월 14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총 5분을 선정해 호동이 인형을 드립니다.

hongbo@koroad.or.kr

※ 보내주시는 메일은 단체 계정으로 수신 확인이 '읽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난 호 당첨자



양*희(95*7)



윤*근(02*4)



정*철(07*2)



장*동(75*6)



김*태(38*1)

※ 상품 지급 시 색상은 임의 발송됩니다.

KOROAD 독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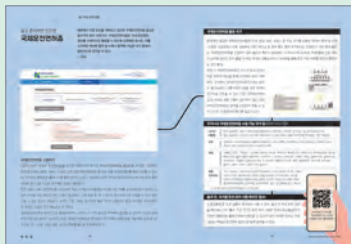
「신호등」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듭니다. 매호 「신호등」을 읽고 느낀 점을 독자 엽서로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약속해요 안전운전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유익했습니다. 또한 큰글씨 특집으로 정확한 이해가 가능했고 교통안전 문화시민의 자긍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훈(07*8)



슬기로운 운전생활

일본 여행을 앞두고 있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이번 기사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보겠습니다.

김*경(16*2)



미래 도로 설명서

골목길 구석구석 단속이 힘든 골목에서도 자율주행 순찰이 가능하다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에 효과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91*2)



안전수칙 365

은퇴후 귀농의사가 있기에 이런 정보가 정말 알찬 정보네요. 관심있게 숙지했습니다.

장*선(28*3)



품안의 안전

임신부의 올바른 안전띠 착용 방법이 임신부와 태어날 아이의 생명에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용을 숙지하고 가족 모두 정독하여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박*옥(09*3)

「신호등」 모의고사 _

다음 문제의 정답을 맞혀 주세요.

정답은 신호등 11+12월호에 숨어 있습니다.

Q1. 이번 호 신호등의 특집 주제는 무엇일까요?

- ① 여행하는 마음으로 ② 배려하는 마음으로
③ 참여하는 마음으로 ④ 감속하는 마음으로

Q2. 다음 중 「신호등」 11+12월호에서 소개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② 통영 여행
③ 약물운전 예방수칙 ④ 세계의 무장해 도시 디자인

Q3. 「신호등」 11+12월호 지금, 여기 코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 ① 동백꽃 군락지 ② 메타세쿼이아숲 ③ 칠면초 군락지 ④ 자작나무숲

참여 방법 2025년 12월 14일까지 '정답/이름/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아래 메일로 보내 주세요.

※ 보내주신 메일은 단체 계정으로 수신 확인이 '읽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hongbo@koroad.or.kr

과월호 당첨자 안내

9+10월호 신호등 모의고사

정답 Q1. ① Q2. ④ Q3.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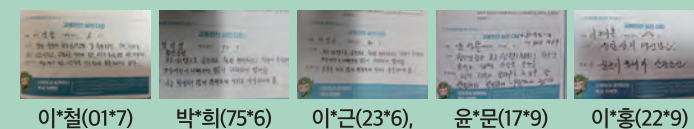
최*지(83*2), 김*연(81*9), 조*미(83*5), 박*오(18*5), 곽*채(64*0)

9+10월호 교통안전 퀴즈

정답 Q1. ① Q2. ① Q3. ④

김*권(98*0), 최*현(40*9), 오*환(20*8), 강*희(04*6), 이*렬(50*0)

9+10월호 교통안전 실천 다짐



이*철(01*7)

박*희(75*6)

이*근(23*6),

윤*문(17*9)

이*홍(22*9)

* 당첨자는 정보 보호를 위해 마스크 처리하여 발표합니다.



「신호등」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당첨자 및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 발송 시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선물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호등」에 게재된 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아래 연락처로 제보해주시길 경우, 감사의 의미를 담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문의. 02-2090-1105 (신호등 편집실)

신호등과 함께 만드는 도로교통 안전 생활

「신호등」 정기구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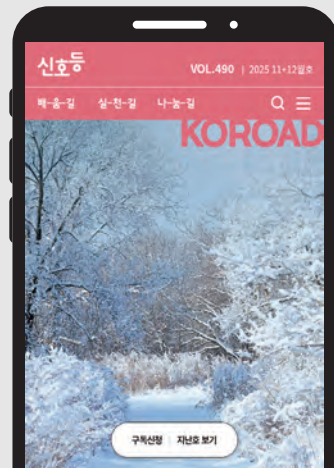
- 「신호등」은 다양한 도로교통 소식과 교통안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발행하는 교통안전 종합정보지입니다.
- 「신호등」은 매 홀수달 초순에 발행됩니다.
- 구독 신청 및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해지·주소 변경 방법

- ① 독자엽서
- ②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신호등」 정기구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호등 서비스 중단 안내

2026년부터 웹진으로 발행되던 온라인 신호등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앞으로 신호등은 발행 책자, 전자책, 온라인 서점 이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 특별이벤트 당첨자 안내

소통광장 이벤트

강*영(88*1), 강*웅(66*0), 강*균(98*3), 권*묵(43*9), 김*희(58*4), 김*민(9308), 김*경(80*3), 김*대(38*2), 김*미(58*3), 김*포(24*8), 김*호(27*2), 김*아(58*2), 김*원(17*6), 김*주(47*5), 김*문(12*9), 김*태(38*1), 도*원(96*0), 민*동(85*2), 박*정(63*1), 박*면(84*8), 박*오(18*5), 박*범(83*8), 여*영(71*2), 오*환(20*8), 윤*규(60*9), 이*철(01*7), 이*수(77*7), 이*원(70*9), 이*민(47*3), 이*은(43*9), 이*홍(22*9), 임*숙(08*0), 장*남(19*0), 정*지(05*8), 정*철(07*2), 조*순(51*2), 한*희(58*2), 황*성(77*2), 황*윤(20*1)

구독신청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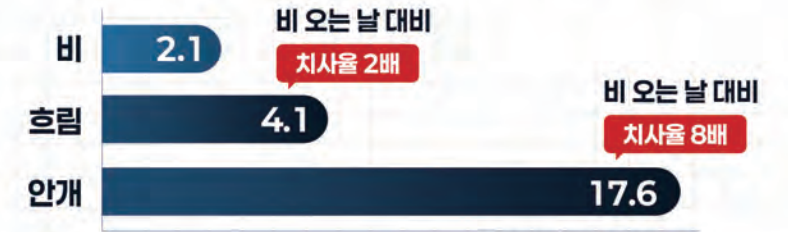
양*현(32*3), 양*인(32*9), 김*현(12*1), 윤*욱(50*1), 김*성(85*4), 김*주(85*5), 김*훈(85*5), 박*숙(07*8), 박*권(79*6), 이*원(70*4), 임*규(54*8), 임*영(04*0), 이*경(26*2), 정*호(37*8), 유*수(33*1), 김*식(60*4), 강*숙(80*7), 강*우(62*2), 김*신(59*9), 이*화(51*3), 김*남(64*7), 이*민(89*9), 신*경(58*4), 김*민(75*2), 유*규(94*0), 안*현(94*0), 심*주(06*8), 허*(55*2), 최*진(74*6), 최*진(86*9)

안전한 주행으로 맑은 내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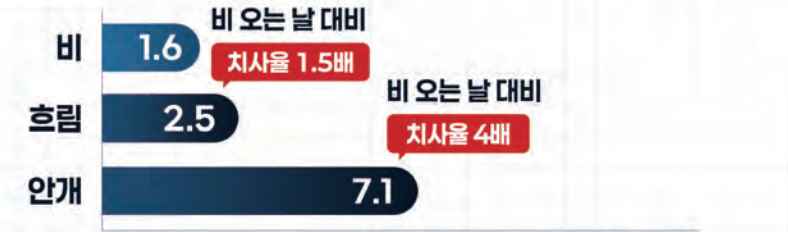
흐리고 안개 낀 날 이륜차 교통사고 조심



1 최근 3년간(2022~2024년) 발생한 날씨별 교통사고 치사율 현황



*이륜차에는 원동기, ATV 포함



*이륜차 제외

비 오는 날보다
⚠ 시야 확보가 어려운 **흐린 날**과 **안개 낀 날**이 위험합니다! ⚠

2 흐리고 안개 낀 날 이륜차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시야 확보 어려운 날
운전 최소화하기



등화장치 점검하기
보호장구 착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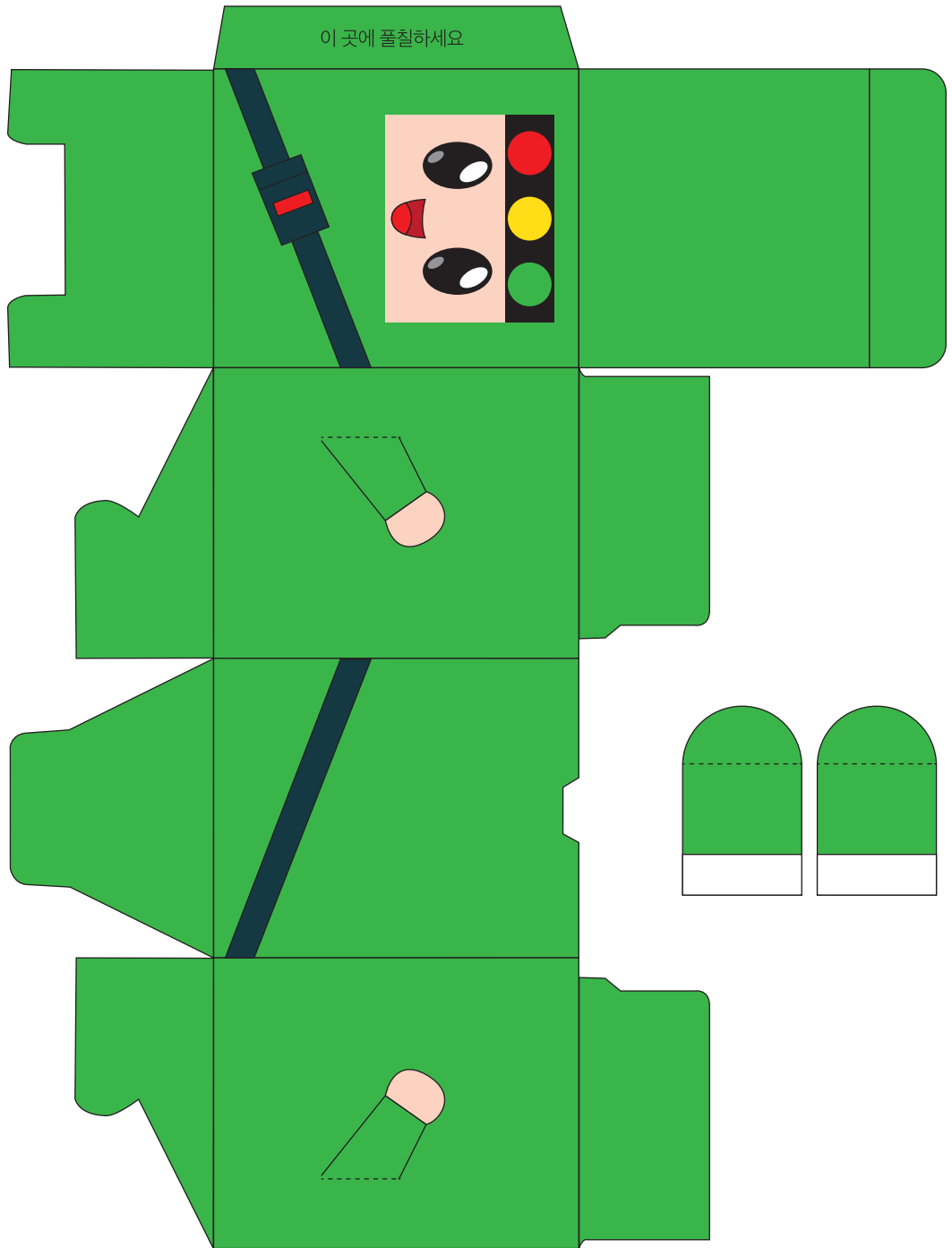


눈에 잘 보이는
밝은 색 옷 입기



속도는 천천히,
안전거리는 넉넉히 확보하기

호동이 상자



*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호동이 상자 인형'입니다. 안내선을 따라 잘라 사용하세요.

* 나만의 호동이 상자 활용 방법을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2개[#KOROAD #호동이상자]를 모두 포함해 업로드하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KOROAD

신호등

KOROAD BIMONTHLY MAGAZINE

2025 11+12월호
VOL. 490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동공단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기술지원, 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교육·홍보, **tbn**교통방송,
운전면허 관리, 교통과학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9층

편집실



「신호등」 독자 엽서



온라인에서도 독자 엽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신호등」이 교통안전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와 그 이유는?

3. 「신호등」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과 그 밖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4.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② 음주운전 ③ 도로 결빙 ④ 자동차 점검 소홀 ⑤ 기타 ()

5.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① 교통안전 교육 ② 교통안전 캠페인 ③ 처벌 강화 ④ 기타 ()

「신호등」 신규 정기구독 및 주소 변경 신청

신규 구독 신청

이름_____

주소_____

구독 주소 변경

이름_____

기존 주소_____

변경 주소_____

봉투에 표기된 독자 번호_____

뉴스레터 신청

_____@_____

독자 퀴즈 답안지

교통안전 퀴즈

Q1 ① ☐ ② ☐ ③ ☐ ④ ☐

Q2 ① ☐ ② ☐ ③ ☐ ④ ☐

Q3 ① ☐ ② ☐ ③ ☐ ④ ☐

이벤트 당첨 시 상품지급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010-□□□□-□□□□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목적: 「신호등」 발송, 이벤트 당첨 상품 발송, 전자우편 뉴스레터 발송에 활용
-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이용 기간: 해지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호등」 구독 및 이벤트 당첨 상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기 구독 동의 ☐ 뉴스레터 수신 동의 ☐ 이벤트 참여 동의

독자 엽서 작성 및 이벤트 참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에서도 가능합니다.